

# A study on Yu Il Seon and his activities in the area of mathematics education

유일선(柳一宣)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에 관한 연구

CHOI Jong Hyeon 최종현 PARK Kyo Sik\* 박교식

Yu Il Seon(柳一宣) is a person who actively engaged in pro-Japanese activitie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regardless of his pro-Japanese activities, he was an indispensable person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and was a pioneer in the field of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education from the end of the Korean Empire(大韓帝國) to the beginning of Japanese colonial period(日帝強占期). In this study misleading information about Yu Il Seon and his activities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is corrected or supplemented. It is known that he graduated from the Tokyo College of Science(東京物理學校), but it does not appear to be true. <The Surihak Japji(數理學雜誌, Magazine of mathematics and Science)> is known to have been published up to the 8th issue, but it seems that the 9th to 10th issues have also been published. He wrote three mathematics textbooks and proofread three mathematics textbooks. The Jeongrisa(精理舍) is known to have been operating until 1912, but it was actually operated until early 1913. It does not appear to be true that journalist Jang Ji yeon graduated from the Jeongrisa.

*Keywords:*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Japanese colonial period, Jeongrisa, Korean Empire, Surihak Japji, Yu Il Seon; 수학교육사,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정리사(精理舍), 대한제국(大韓帝國),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 유일선(柳一宣).

MSC: 97A03 ZDM: A32

## 1 서론

유일선(柳一宣)은 일제(日帝)가 설치한 통감부(統監府)의 통제를 받던 대한제국 말과 일제강점기 초에 걸쳐 선구적으로 활동한 교육자로 수학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 활동으로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은 거의 잊혔다가 비교적 최근에 다시 주목받았다 [42, 44, 45]. 유일선의 생애가 어느 정도 알려진 것도 최근의 일이다 [56]. 유일선의 친일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56, 58],

---

\*Corresponding Author.

CHOI Jong Hyeon: Dept. of Math. Edu., Gyeongsu Univ. of Edu. E-mail: jhchoi08@ginue.ac.kr  
PARK Kyo Sik(Prof. Emeritus): Dept. of Math. Edu., Gyeongsu Univ. of Edu.  
E-mail: pkspark@ginue.ac.kr

Received on Aug. 13, 2024, revised on Jan. 1, 2025, accepted on Jan. 5, 2025.

그것은 이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수학교육 분야에서 그의 활동이다.

유일선이 수학 교사·강사로 활동했던 것을 선행 연구 [21, 22, 56]과 당시의 신문 기사 및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1907년 11월 2일 대한매일신보 3면 광고, 1909년 6월 17일 대한매일신보 2면 기사, 1911년 6월 27일 매일신보 3면 기사, 1915년 7월 10일 매일신보 1면 기사, 1922년 4월 29일 매일신보 3면 기사).<sup>1)</sup> 특히 유일선이 사망하고 2년 후인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 당시 중동(中東)학교의 교장이었던 최규동(崔奎東)은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유일선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2)</sup> 최규동은 유일선이 운영한 수리(數理) 전문학교인 정리사(精理舍) 출신의 수학 교사였으며(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자신의 스승이 유일선이라고 했다(1929년 1월 7일 조선일보 2면 기사).

… 柳一宣 氏의 努力이란 그야말로 超人的이었다 그는 오로지 新文化를 後代 朝鮮에게 繼承하자는 熱意에서 거의 寢食을 잇다시피 하며 낮과 밤을 헤아리지 안고 教壇에서 온갖 情熱을 消費하기에 秋毫도 躊躇하지 안했다 …<sup>3)</sup>

선행 연구에서 유일선이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를 발간했고, 수학 교과서를 저술했으며 정리사를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수리학잡지> 발간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 [21, 22, 44, 45]를 참고할 수 있다. 수학 교과서의 저술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 [25, 37, 42, 44]를 참고할 수 있고, 정리사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 [1, 37, 42, 44, 56]을 참고할 수 있다. 유일선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유일선이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일선의 생애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 [42, 44, 45, 56]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공하는 유일선의 수학 교과서 저술·교열 및 정리사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는 단편적이고, 유일선의 학력과 경력 정보 중에는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일선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계승하되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그의 학력 및 경력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가 발간한 <수리학 잡지>와 그가 저술 및 교열한 수학 교과서의 서지(書誌) 사항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는 것이다.<sup>4)</sup> 셋째는 그가 설립·운영한 정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 제시된,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또 단편적인 정보를 보완했다.

이 연구를 위해 유일선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1) 이 연구에서는 여러 종의 신문에 실린 기사와 광고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본문에서 기사와 광고가 실린 신문의 발행일을 명기하는 대신 뒤의 참고문헌에서는 신문의 이름만 제시한다.

2) 기사 앞부분에 ‘최규동에게 수학 발달사를 묻는다’는 표현이 있다.

3) … 유일선 씨의 노력이란 그야말로 초인적이었다. 그는 오로지 신문화를 후대 조선에게 계승하자는 열의에서 거의 침식을 잇다시피 하며 낮과 밤을 헤아리지 않고 교단에서 온갖 정열을 소비하기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았다. …

4) 이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는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자료와 <동경물리학교 50년소사(東京物理學校五十年小史)>는 1차 자료로 보았고, 그 이외의 자료는 모두 2차 자료로 보았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찾아 선행 연구의 단편적인 정보를 보완했다. 2차 자료끼리 상충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선행 연구 중에는 유일선의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이유서’ 등과 같은 특정한 자료에 의존하고, 그와 상충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2차 자료를 참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자료를 교차 점검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았다. 내용에 따라서는 신문 기사와 광고, 이력서, 개인이 남긴 기록 등도 1차 자료로 볼 수 있으나, 교차 점검이 필요하기에 이 연구에서는 2차 자료로 간주하였다.

## 2 유일선의 학력과 경력 정보의 검토

2006년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일선의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이유서’(이하 ‘결정 이유서’)에서 그의 학력 및 경력을 조사하여 제시했다 [58, p. 869–870].<sup>5)</sup>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선 및 조선민족(朝鮮及朝鮮民族)>, 1937년 4월 13일 매일신보(毎日申報) 3면 기사, 1906년 4월 17일 황성신문(皇城新聞) 3면 기사를 참고하여 ‘유일선이 1900년에 도쿄물리학교에 입학하여 1904년에 졸업했고, 1905년 11월에 일신(日新) 학교 교사가 된’ 것처럼 적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3종의 자료로부터 실제로는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없다. 앞의 두 자료는 상충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셋째 자료의 해석은 잘못되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결정 이유서를 참고한 선행 연구 [42, 44, 45]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특히 유일선이 발간한 <수리학잡지>에 관한 선행 연구 [44]에서는 이 결정 이유서의 학력과 경력 부분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유일선의 친일 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생애에 대해 논의했던 선행 연구 [56]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937년 4월 13일 매일신보 3면 기사, 1906년 4월 17일 황성신문 3면 기사도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셋째 자료인 황성신문 기사의 잘못된 해석은 바로 잡히지 않았다.

선행 연구 [42, 44, 45, 56]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참고했던 <조선 및 조선민족>을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1927년에 간행된 이 책의 다음 내용은 현재까지는 유일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기록으로 보인다 [30, p. 371–372].

[인용문 1] 京城の人, 今年四十有九明治三十五年京城學堂卒業, 直に同學堂教師  
となり, …, 日露役後東京物理學校卒業, 歸りて精理舎なる數理學校を創設し,

5) 진상규명위원회가 비록 대통령 소속의 공식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결정 이유서를 1차 자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유일선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1차 자료로 간주하지 않았다.

傍ら當時新に勃興せる各種の學校に於いて數理教師を兼任した. ...<sup>6)</sup>

1937년 4월 13일 매일신보 3면의 유일선 사망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다음 내용은 그의 학력과 경력 정보를 알 수 있는 두 번째로 빠른 기록으로 보인다.<sup>7)</sup>

[인용문 2] ... 유일선(柳一宣) 씨는 11일 ... 심장마비로 ... 별세하였다. 향년이 五十九세이다. 선생은 명치 廿八年 동현을미의숙(銅峴乙未義塾)에서 국어를 배우고 동卅三年 동경물리학교(東京物理學校)에 입학하여서 수리학(數理學)을 전공하는 한편 동경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에서 기상학을 연구하였다 ...

인용문 1에서는 유일선이 메이지(明治) 35년(1902년)에 경성학당(京城學堂)을 졸업하고 바로 경성학당의 교사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일선은 적어도 1902년 후반에야 비로소 일본으로 떠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인용문 2에서 그가 메이지(明治) 33년(1900년)에 도쿄물리학교에 입학했다고 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

1989년에 발표된 西原基一郎(니시하라 키이치로)의 논문에서 유일선의 학력을 언급한 다음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이 내용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54, p. 175].

[인용문 3] ... 柳一宣は, 京城學堂で渡瀬に学び, 卒業後, 東京物理學校, 帝國教育會教員養成所, 同志社大學神學科などに學んだ. ...<sup>8)</sup>

인용문 1과 3에 따르면 유일선은 경성학당을 졸업했다. 박혜미는 유일선이 “경성학당 제1회 졸업생으로서 졸업 이후 학당 조교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 1900년 학당 조교를 사직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물리학교에 입학하였다.”라고 하고 있지만, 인용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56, p. 215–216]. 1899년 6월 16일 독립신문 3면 기사에 따르면, 경성학당의 제1회 졸업식은 1899년 6월 14일에 열렸고 이때 14명의 학생이 졸업했지만, 이 기사에 게재된 14명의 졸업생 명단에서 유일선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한용진의 연구에서 1900~1901년 2월에 근무한 경성학당의 한국인 교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유일선이라는 이름은 없다 [23, 24]. 이것으로 보면 1900~1901년 2월에 유일선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 3에 따르면 유일선은 경성학당에서 와타세(渡瀬)에게 배웠고, 와타세는 1899년 9월에 경성학당장으로 부임했으므로 [23, 24], 이 자료에 따르면 유일선은 경성학당의 제

6) 유일선은 경성 사람으로 올해(1927년) 49세이고 메이지(明治) 35년(1902년)에 경성학당(京城學堂)을 졸업하고, 곧바로 경성학당 교사가 되었으며, ... 러일 전쟁 후에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정리사라는 수리학교를 창설하고, 한편으로 당시 새로 발흥한 각종 학교에서 수리(數理) 교사를 겸임했다. ...

7) 이 기사에 따르면, 유일선은 1937년 4월 11일에 사망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에서 그의 출생 연월일을 1879년 12월 27일로 특정하고 있다. <조선 및 조선민족> 371쪽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책의 371쪽은 물론 372쪽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371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성(京城) 사람’이라는 것뿐이다. 선행 연구 [56]에서도 그의 출생 연월일을 그렇게 적고 있지만, 인용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문 1~2에서의 나이를 세는나이로 보면, 그는 1879년에 출생했다고 할 수 있다.

8) ... 유일선은, 경성학당에서 渡瀬에게 배우고, 졸업 후, 도쿄물리학교, 제국교육회(帝國教育會) 교원양성소, 도시사(同志社)대학 신학과 등에서 배웠다. ...

1회 졸업생일 수 없다. 이처럼 서로 다른 2차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상충 된다는 점에서 박혜미가 주장한 내용과 인용문 2에서 유일선이 1900년에 도쿄물리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 1에서는 유일선이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인용문 2와 3에서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결정 이유서에는 <조선 및 조선민족> 372쪽을 인용하여 유일선이 1904년에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58, p. 869], 인용문 1에서는 그가 메이지(明治) 37년(1904년)이 아니라 日露役後(러일 전쟁 후)에 졸업했다고 되어 있다. 러일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시작되었고 1905년 9월 5일에 끝났다 [1]. 게다가 1930년에 간행된 <도쿄물리학교오십년소사(東京物理學校五十年小史)>에서 그때까지의 졸업생 명단을 볼 수 있는데, 이 명단에서 유일선이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2, p. 215-217]. 서로 다른 2차 자료의 정보가 상충 된다는 점에서 유일선이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도쿄물리학교오십년소사>를 1차 자료로 간주할 수 있고, 또 그 기록이 정확하다고 본다면, 유일선은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는 인용문 2에서 ‘유일선이 도쿄중앙기상대에서 기상학을 연구했다’라는 것과 인용문 3에서 ‘유일선이 제국교육회 교원양성소에서 배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인용문 2와 3의 주장에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정보가 있는 다른 2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 <수리학잡지> 제1호가 1905년 12월에 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일선은 그 이전에 귀국했을 것이다. 인용문 1~3을 모두 참고하면 그가 1904년에 귀국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결정 이유서에서 유일선이 1905년 11월에 평양의 일신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것의 근거는 1906년 4월 17일 황성신문 3면의 다음 기사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1905년 11월에 일신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때 유일선이 교사로 연빙(延聘)된 것은 아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자료의 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平壤居 郭龍勳 金壽哲 等 諸氏가 昨年 十一月에 資本金 五千圓을 鳩聚 ㅎ야 該郡  
에 日新學校를 發起 創立 ㅎ얏는디 … 校長 張志淵氏와 協議 ㅎ야 教科書를 多數  
編輯 ㅎ기로 經營 ㅎ고 教師는 柳一宣 安秉瓚 兩氏로 延聘 ㅎ얏다 ㅎ니 …<sup>9)</sup>

다른 2차 자료인 1906년 4월 15일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2면 기사에 따르면, 장지연이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교장으로 정해진 것은 1906년 4월로 보아야 한다.<sup>10)</sup> 따라서

9) 평양에 사는 곽용훈, 김수철 등 여러 사람이 작년(1905년) 11월에 자본금 5천 원을 한데 모아(鳩聚, 구취) 해당 지역에 일신학교를 새로 만들었는데 … 교장 장지연 씨와 협의하여 교과서를 다수 편집하기로 경영하고 교사는 유일선, 안병찬 두 분을 예를 갖추어 초빙(延聘, 연빙)하였다 하니 …

10) 1906년 4월 15일 대한매일신보 2면 기사에 “校長을 張志淵氏로 薦定(천정) ㅎ고”라고 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대한매일신보는 대한제국 광무 8년(1904년) 7월 18일에 양기탁(梁起鐸, 1871~1938)이 영국인 베델(E. T. Bethell, 1872~1909)과 함께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한 항일 신문이다. 그러나 1910년 8월 국권 강탈 후 강제로 매수당해 ‘매일신보’로 이름이 바뀌고 총독부의

장지연과 협의하여 유일선을 교사로 연빙했다면, 그 시기는 1905년 11월이 아니라 1906년 4월 또는 그 이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1906년 4월이면, 유일선이 이미 한성부(漢城府)의 상동청년학원의 교장을 맡고 있을 때이다 [22]. 또 1906년 4월 27일 대한매일신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일신학교장 장지연은 안병찬(安秉瓚) 1인만 연빙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안병찬이 일신 학교 교사로 활동한 자료는 찾을 수 있었으나(1906년 4월 24일 황성신문 3면 기사, 1906년 4월 25일 황성신문 3면 기사, 1906년 7월 23일 황성신문 1면 기사, 1906년 8월 9일 황성신문 3면 기사, 1906년 8월 11일 황성신문 3면 기사, 1906년 4월 27일 대한매일신보 3면 기사, 1906년 7월 11일 대한매일신보 3면 기사, 1906년 8월 10일 대한매일신보 3면 기사), 유일선이 일신학교 교사로 활동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일신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 3 <수리학잡지>의 발간과 수학 교과서의 저술 및 교열

#### 3.1 <수리학잡지>의 발간

<수리학잡지>에서 취급한 수학과 이학 분야의 내용은 현재의 중등학교 수준에 해당한다. 이 잡지의 발간 취지는 최덕교가 2004년에 이미 소개한 바 있고 [3, p. 146-148],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구와 설한국이 자세히 소개했다 [44]. 그런 만큼 이 연구에서는 이 잡지의 발간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며, 대신 추가적인 2차 자료를 참고하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김용운과 김용국은 <수리학잡지>에 대해 “「수리잡지(數理雜誌)」, 유일선 주간, 1905년 11월~1906년 9월, 통권 8권이라는 사실만 알 뿐 그 내용은 아직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만 [37, p. 632, 각주 16], 인용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수리잡지>는 <수리학잡지>의 오식(誤植) 또는 오기(誤記)이다. 1905년 11월과 1906년 9월도 각각 1905년 12월과 1906년 7월의 오식 또는 오기이다. 이것은 그들이 <수리학잡지>의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리사’ 항목의 집필자 강명숙은 1982년에 간행된 김용운과 김용국의 <한국수학사>를 참고하여<sup>11)</sup> “<수리잡지>를 1905년 11월호부터 1906년까지 통권 8호를 발행하였고”와 같이 오식 또는 오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1].

이러한 오식 또는 오기는 최덕교가 이 잡지의 제1권 일부와 제3호의 판권지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3, p. 146-148],<sup>12)</sup> 또 이상구와 설한국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기관지가 되었다. 국한문판과 한글판으로 간행하였으며 1945년에 ‘서울신문’으로 이름을 고쳤다 [52].

11) 강명숙은 1982년에 출판된 <한국수학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2009년에 출판된 <한국수학사>를 참고했다. 2009년 판은 1977년의 초판 및 두 번의 개정판 이후의 개정증보판이다.

12) 최덕교는 “1906년 9월 통권 제8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인용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

전자책 형태로 소장된 <수리학잡지> 제1호와 제4~7호를 소개하면서 [44] 비로소 바로 잡혔다. 이상구와 설한국은 이 잡지가 제7호까지 발간된 후 폐간되었으며, 제2호와 제3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44]. 한규무는 2013년 10월에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상동청년학원 연구(1904~1913)의 결과 보고서’에서 <수리학잡지> 제1호, 제4~5호, 제7호가 현존한다고 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21], 참고문헌에 이상구와 설 한국의 논문 [44]도 인용하지 않았다.

사실 <수리학잡지> 제2호와 제3호는 현존한다. ‘재단법인 현담문고’에 <수리학잡지> 제1호~4호가 소장되어 있다 [27].<sup>13)</sup> 제8호는 국회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 [21]에서 현재 <수리학잡지> 제1호, 제4~5호, 제7호가 남아 있다고 한 것이나, 선행 연구 [44]에서 <수리학잡지>가 제7호로 폐간되었다고 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1905년 12월 5일부터 1906년 7월 5일까지 매달 5일 발행된 <수리학잡지> 제1~8호는 모두 현존한다.

<수리학잡지>는 제8호까지만 발행되었는가? 다음 광고는 이 잡지가 적어도 제10호까지는 발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06년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수리학잡지>의 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수리학잡지사(數理學雜誌社)’의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광고가 여러 차례 실렸다. 다음은 1906년 11월 3일 대한매일신보 3면에 실린 광고이다. 십중팔구는 외상 배달이고 이미 발송한 제10호 대금을 안 보내주어 업무가 중단될 지경이라 제11호부터는 대금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배달하지 않을 것이고, 사태 파악을 위해 제11호는 발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本社雜誌를 交價購覽하시는 外에 外上發送이 十居八九이온디 已發十號而代金  
을 尙未付送하와 社務將閉이옵기 自十一號로 無代金處는 決不配達할터이오며  
且緊急調査를 爲하야 十一號는 一朔停役하오니 購覽僉員은 照亮하시오. 尙洞  
靑年學院內 數理學雜誌社<sup>14)</sup>

한규무의 ‘상동청년학원 연구(1904~1913)의 결과 보고서’에 보면, 상동청년학원이 <수리학잡지>를 발간했다고 하고 있지만 [21], 현존하는 <수리학잡지>에는 ‘상동청년학원’이 발간 또는 발행했다는 표현을 찾을 수 없고 ‘수리학잡지사’가 상동청년학원 내에 있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연구자의 논문 ‘상동청년학원 연구(1904~1913)’에서는, 이 논문

실제로 제8호는 9월이 아니라 7월에 발간되었다.

13) 현담문고(<https://www.hyundammungo.org>)에서 <수리학잡지> 제1~4호의 서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7].

14) 본사 잡지를 사서 읽는(交價購覽, 교가구람) 외에 외상 발송이 십중팔구(十居八九)인데 이미 보낸(已發, 이발) 10호의 대금을 아직 안 보내주어(尙未付送, 상미부송) 업무가 중단될 지경(社務將閉, 사무장폐)이라 11호부터는 대금을 보내지 않는 곳(無代金處, 무대금처)은 절대로 배달하지 않을 것이고(決不配達, 결부배달) 또 긴급 조사를 위하여 11호는 한 달 발간하지 않으니(一朔停役, 일삭정역) 사서 읽는 여러분(僉員, 첨원)은 조량(照亮, 형편이나 사정을 살펴 밝히 알)하시오. 상동청년학원 내 수리학잡지사

발표에 앞서 제출한 이 결과 보고서 [21]과는 다르게, <수리학잡지>를 유일선이 발간했다고 말하고 있다 [22].

### 3.2 수학 교과서의 저술과 교열

유일선이 저술한 수학 교과서로 이 연구에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초등산술교과서(상, 중, 하)>, <중정대수학교과서>, <중정평면삼각법>의 3종이다.<sup>15)</sup> <초등산술교과서>가 상·하 2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 연구도 있지만 [37, p. 632 각주 15], [42, 44], 실제로는 상·중·하의 3권으로 발행되었다 [25]. 상권은 1908년에, 중권은 1910년에, 하권은 1911년에 모두 정리사에서 발행되었다. 이 3권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8년 7월 1일 대한매일신보 4면 광고에는 상권의 '발매원(發賣元)'을 정상환(鄭象煥)이라 하고 있다.<sup>16)</sup> 1910년 2월 9일 황성신문 3면 광고에는 중권의 '총발매소'를 신구서림이라 하고 있다. 1910년 7월 1일 황성신문 4면 광고에는 상권 재간(再刊)의 '발행 겸 원매소(元賣所)'를 신구서림 지송욱(池松旭)이라 하고 있다. <중정대수학교과서>는 1910년에 정리사에서 발행되었다. 이 교과서에 대해 한영균이 '한성 신구서림 발행'이라고 한 것은 이 교과서의 표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 그런데 판권지에는 '발행소'를 정리사, '발매원(發賣元)'을 신구서림, '발행자'를 지송욱이라 하고 있다. 1910년 12월 1일 매일신보 4면 광고에서는 '발행소'를 신구서림 지송욱이라 표기하고 있다. 지송욱은 신구서림을 경영했던 인물이다 [5]. 이 책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중정평면삼각법>은 1912년에 신구서림에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유일선은 <초등산술교과서> 상권의 서문에서 이 책이 중학 정도의 학생을 위한 것이라 하고 있다 [33, p. 250], [37, p. 572]. 1909년 3월 20일 황성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초등산술교과서> 상권은 1909년에 대한제국 학부의 인가를 받아 [39, p. 9]<sup>17)</sup>, 1910년에도 사용되었고 [40, p. 11], 1912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14, p. 14]. <초등산술교과서> 중권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15, p. 16]. <초등산술교과서> 상권과 중권은 적어도 1918년까지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6, p. 19], [17, p. 19]<sup>18)</sup>, [18, p. 20], [19, p. 21]. 하지만 <초등산술교과서> 하권이 조선총독부의 검정이나 인가를 받은 기록은 찾지 못했다. <중정대수학교과서>는 1910년 6월에 학부의 검정을 통과해서(조선총독부 관보 186호, 1911.

15) <중정대수학교과서>와 <중정평면삼각법>에서 '중정(中程)'은 '중학(中學) 정도(程度)'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6) 정상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17) <교과용도서일람(증보 제4판)> [39]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과용도서일람(증보 제5판)> [40]과 <교과용도서일람(개정 제6~8판)> [14, 15, 16]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18) <교과용도서일람(개정 제9판)>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04. 17, 126면) 일제강점기 초반인 1913년까지 사용되었지만 [14, p. 5], [15, p. 7]<sup>19)</sup>, 1914년에 그 검정이 무효가 되었고(조선총독부 관보 504호, 1914. 04. 08, 88면), 1914년에 간행된 <교과용도서일람> 개정 제8판에도 검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되어 있다 [16, p. 11]. <중정평면삼각법>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고 [15, p. 19], 적어도 1918년까지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6, p. 22], [17, p. 23], [18, p. 24], [19, p. 25].

이 이외에 유일선이 교열 또는 감수한 수학 교과서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준봉(金俊鳳)이 1908년에 저술한 <대수학교과서><sup>20)</sup>, 이명구(李命求)가 1909년에 저술하고 광동서국에서 발행한 <평면기하학><sup>21)</sup>, 최규동(崔奎東)이 저술한 <중등교육산술신교과서>의 3종이다. 1911년에 안일영이 저술하고 보급서관에서 발행한 <산술문제신해법전서(全書)>도 있으나 이 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출판된 것으로, 유일선의 <초등산술교과서>의 일부 문제 및 그와 유사한 문제의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1911년 8월 10일 매일신보 3면 광고). 이 책을 소장한 기관은 찾을 수 없었으나 영인본은 현재 판매되고 있다. 안일영은 김천고등보통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지만, 중등학교의 수학 교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1927년 7월 14일 동아일보 5면 기사, 1935년 1월 1일 동아일보 11면 기사).<sup>22)</sup>

<대수학교과서>의 판권지에 나와 있는 저자의 주소(西部 社稷 後洞 72통 4호)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인물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漢城 西署 仁達坊 彌雲臺契 後洞 第72通 第4號) 및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제공하는 <서울지명사전>을 참고하면 [51, 59], 김준봉은 탁지부의 측량 기수 및 흥화학교 교사를 지낸 인물로 보인다.<sup>23)</sup> 1909년 11월 13일 황성신문 2면 광고에 따르면, 이명구는 융희(隆熙)학교 학감(學監)을 지냈다. 유일선을 스승이라고 했던(1929년 1월 7일 조선일보 2면 기사) 최규동은 중등학교 교장과 서울대학교 총장을 지낸 수학교육자이다 [41, p. 17–36], [57, p. 483–489]. 김준봉의 <대수학교과서>는 1910년에 대한제국 학부의 인가를 받은 후 [39, p. 10], [40, p. 12], 1912년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14, p. 17]. 이명구의 <평면기하학>도 이때 함께 인가를 받았다 [14, p. 17]. 그 후 이 두 교과서는 적어도 1918년까지는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5, p. 18], [16, p. 21], [17, p. 21–22], [18, p. 22–23], [19, p. 23–24]. <대수학교과서>는 이화여자대학교

19) 이 연구에서는 본문에서 관보의 발행일과 면을 명기하는 대신 뒤의 참고문헌에서는 간단히 ‘조선총독부 관보’라고 한다. <중정대수학교과서>는 1910년 6월 10일 학부 검정을 통과했지만, 실제 발행일은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이후인 1910년 10월 23일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검정 공고가 이루어졌다.

20) 김봉희의 책 250쪽에서 ‘金俊鳳’은 金俊鳳의 오식이다 [33, p. 250]. 이 교과서의 발행소는 알 수 없다. 이 책의 판권지에 저자와 발행소를 합쳐 김준봉이라고 적혀 있고, 발매원과 발행자를 합쳐 정상환(鄭象煥)이라고 적혀 있다.

21) 한영균의 연구에서 李命求로 기록되어 있지만 李命求의 오식이다 [25]. 1909년 11월 13일 황성신문 2면 광고의 李命九도 李命求의 오식이다.

22) 1939년 9월 22일 동아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안일영은 1939년 9월 20일에 뇌막염으로 사망했다. 이때 55세였다. 이것을 세는나이로 보면 그는 1885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

23)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김준봉은 1884년에 출생했다. 사망 연도는 알 수 없다.

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고, <평면기하학>은 서원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sup>24)</sup>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925년부터 1927년까지의 <기인가(既認可)교과용도서일람>에 유일선 집필의 교과서 3종 <초등산술교과서(상, 중, 하)>, <중정대수학교과서>, <중정평면삼각법>과 유일선 교열의 교과서 2종 <대수학교과서>와 <평면기하학>은 나와 있지 않다 [11].<sup>25)</sup> 이것으로 보면 이 교과서들은 더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규동의 <중등교육산술신교과서>는 1920년부터 1930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총독부의 검정을 6번 받았음을 조선총독부의 관보를 통해 알 수 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2263호, 1920. 03. 01, 11면; 제2587호, 1921. 03. 30, 311면; 제2878호, 1922. 03. 20, 264면; 제2981호, 1922. 07. 20, 277면; 제78호, 1927. 04. 06, 75면; 제1047호, 1930. 07. 01, 8면). 현재 이 교과서의 1920~1922년, 1927년 판을 소장한 기관은 찾지 못했다. 1920년 판은 활문사에서 발행되었다(1920년 3월 23일 매일신보 4면 광고). 1920~1922년 판의 발행인이 양재기(梁在璣)로 같다는 점에서, 1920~1922년 판은 모두 활문사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27년 판의 발행인은 고유상(高裕相)이다. 그가 회동서관을 운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1], 1927년 판은 회동서관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1930년 판의 발행인은 안효영(安孝英)이다. 1931년 3월 11일 조선일보 5면의 기사 ‘출판 소식’에서 ‘중등교육산술신교과서 안효영’을 볼 수 있다. 청진서관에서 발행된 1931년 판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면 1930년 판은 청진서관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1925년부터 1927년까지의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에는 이 교과서가 나와 있다 [11, p. 19]. 그러나 1931년부터 1932년까지, 그리고 1932년부터 1933년까지의 <인가(認可)교과용도서일람>에는 모두 이 교과서가 나와 있지 않다 [12, 13].<sup>26)</sup> 1931년 판이 발행된 것으로 보면, 이 교과서는 1931년까지는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4 정리사의 운영

### 4.1 정리사의 운영

조선총독부(내무부 학무국 학무과)가 1910년 10월 31일 당시 경성부(京城府)에 있었던 사립 학교(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는 제외)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한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상 일람(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 [51]과<sup>27)</sup> 조선총독부(내무부 학무국)에서 1913년 3월에

24) 이 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는 검색되지 않지만, 서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검색된다.

25) <기인가교과용도서일람>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26) 이 두 <인가(認可)교과용도서일람>은 이승구, 박봉배, 이창순의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의 부록 2의 447~496쪽과 497~543쪽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46].

27) 이 연구에서 참고한 <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한국 근대사 기초자료집>에 수록된 것이다. 이것은 渡部學·阿部洋 編 <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제67권에 수록된 明治四十三年十月末日現在 京城府內私立學校現狀一斑(內務部學務局學務課調査)를 전재한

발행한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통계 요람(朝鮮人教育私立學校統計要覽)>에 제시된 정리사의 개략적인 현황 [20, p. 11]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인다.

이 두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사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사는 대한제국기인 1906년 11월에 설립되었고 1909년 8월 5일에 허가를 받았다.<sup>28)</sup> 중부(中部) 수진동(壽進洞)에 있었던 정리사는 사립 융희학교(隆熙學校)의 시설(교지 40평, 교사 24평)을 사용한 야간 학교(夜學)로 수리(數理) 분야의 3년제 전문학교였다. 191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로 운영되었던 정리사의 교원은 한국인 2명이었고, 학생은 76명이었다. 1913년 3월 기준으로는 교사 4명, 학생 재적자(在籍者) 45명에 출석자 33명이었다.

다음 두 신문 광고로부터 정리사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gure 1은 1910년 3월 12일 대한매일신보 4면에 실린 정리사 학생 모집 광고이다. Figure 2는 1911년 3월 10일 매일신보(每日申報) 3면에 실린 정리사 학생 모집 광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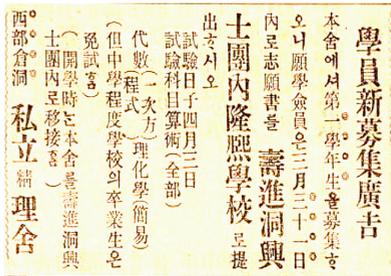


Figure 1. advertisement(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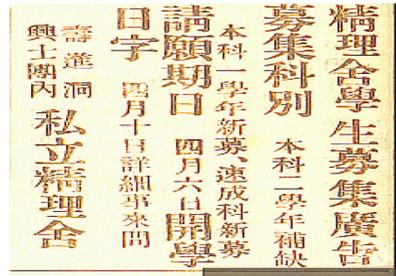


Figure 2. advertisement(1911)

Figure 1에서 ‘제1학년’을, Figure 2에서 ‘본과(本科) 1학년’, ‘본과 2학년’, ‘속성과’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김민수는 정리사에 대해 ‘예과 1년, 본과 2년제 사립학교’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용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36]. 이 정보와 앞의 두 신문 광고를 참고하면 당시 정리사는 제1학년은 예과로, 제2학년과 제3학년은 본과로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사에는 3년제 과정 이외에 별도의 속성과가 있었다. 속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정보를 Figure 3에서 찾을 수 있다. Figure 3은 1910년 3월 31일 황성신문 3면에 실린 정리사 속성과 학생 모집 광고이다. Figure 3에서 속성과는 15세 이상으로 국한문에 상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술, 대수, 기하를 1년에 마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설(特設)’이라고 한 것을 보면 속성과는 1910년에 처음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2에서 1911년에도 속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것으로 되어 있다 [51].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통계 요람>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책으로 제공되고 있다.  
28) 일제가 설립한 통감부의 통치를 받던 시기에 정리사의 설립과 허가가 이루어졌지만, 이에 관한 공식적인 문서는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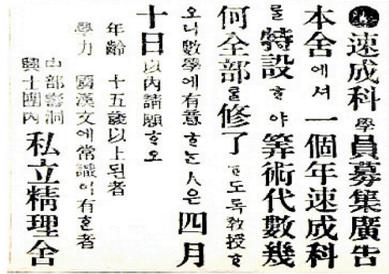


Figure 3. advertisement(1910)

본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규동의 회고 [4]와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리사(精理舍)의 ‘精理’는 정신과학(精神科學)과 이과(理科)를 주로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그 두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본과에 ‘정신과’와 ‘이과’의 2개 과가 있었다. 정신과에서는 성서, 심리, 윤리, 논리, 철학 등을 가르쳤고 이과에서는 수학, 물리, 화학, 박물(博物) 등을 가르쳤다.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에 따르면, 정리사는 경성부 중부의 수진동에 있는 용희학교의 시설을 사용했다. 용희학교는 1908년에 설립되어 1909년 3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으므로 [51], 정리사는 용희학교가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시설을 이용했다. 1910년 3월 12일 대한매일신보 4면 광고와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를 참고하면 정리사는 경성부 서부(西部)의 창동(倉洞)에 있다가 1910년 4월에 중부의 수진동으로 옮긴 것이다.<sup>29)</sup>

1910년 3월 12일 대한매일신보 4면 광고(Figure 1)를 참고하면, 정리사의 입학 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시험 과목으로는 산술(전부), 대수(일차방정식), 이화학(간이)이 있었다. 다만 중학 정도 학교의 졸업생에게는 시험을 면제해 주었다. 이것으로 보면 정리사에서 일차방정식 이상의 수학을 가르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정리사는 1912년까지 운영되었다 [1]. 집필자 강명숙은 참고문헌으로 〈인물과학사 1〉, 〈한국수학사〉,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을 제시하고 있다.<sup>30)</sup> 하지만 이 참고문헌에서 정리사의 폐교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37, 51, 57]. 이 사전에서 정리사가 1912년까지 운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총독부(내무부 학무국)에서 1913년 3월에 발행한 〈조선인 교육 사립학교 통계 요람〉에 정리사의 현황이 있기 때문이다 [20, p. 11]. 1913년 7월 유일선의 ‘조선(朝鮮)전도 본부’ 활동 집중, 경제적 곤궁 및

29)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와 〈서울지명사전〉 [59]를 참고하면 ‘창수골(대한제국) → 창동(倉洞. 대한제국 통감부 시대) → 남미창정(南米倉町, 일제강점기) → 남창동(南倉洞, 현재, 서울시 중구)와 같이 바뀌었다.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현재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동북방과 종로구청 일부가 지금은 없어진 수진동에 해당한다 [59].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리사’ 항목에서 집필자 강명숙이 조선총독부가 〈경성부 내 사립학교 현상 일반〉을 1910년 5월에 작성했다는 것 [1]은 옳기 또는 오식이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8월 이후에 설치되었다.

일본 유학 등의 사유와 염광섭(廉光燮)이 이력서에 1910년에 정리사에 입학하여 1913년에 졸업했다고 적은 점을 고려하면 [28, 56], 정리사는 1913년 3월 이후에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 염광섭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박혜미는 정리사를 ‘전문수리학교(專門數理學校)’라고 하고 있지만, 출판사로서의 정리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6]. 이에 비해 김용운과 김용국은 정리사를 전문학교가 아닌 출판사로만 소개하고 있다 [37, p. 573]. 정리사를 ‘출판사 및 학원(전문학교)’으로 보는 연구도 있다 [42, 44]. 정리사를 출판사로 보는 이유는 유일선의 <초등산술교과서(상, 중, 하)>와 <중정대수학교과서>의 발행소가 정리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발행소를 정리사로 명시한 책은 이 2종 이외에는 찾지 못했다. 또 정리사를 이 2종의 책의 발행소로 명시하고 있는 당시의 신문 광고도 찾지 못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1908년에 간행된 <초등산술교과서> 상권 초판의 ‘발매원’은 정상환이고, 1910년에 간행된 중권의 ‘총발매소’는 신구서림이다. 1910년에 간행된 상권 재간의 ‘발행 겸 원매소’는 신구서림 지송욱이다. 1910년에 간행된 <중정대수학교과서>의 ‘발행소’는 신구서림 지송욱이다. 이것으로 보면 정리사를 발행소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리사가 출판사의 역할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등산술교과서> 상권 초판의 출판 업무는 정상환이라는 인물이 운영한 업체가, 그리고 <초등산술교과서> 상권 재간과 중권 및 <중정대수학교과서>의 출판 업무는 신구서림이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sup>31)</sup>

정리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입학과 졸업 사항은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과 관련한 1차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단지 정리사 출신의 인물과 관련한 2차 자료에서 입학, 졸업, 수료에 관한 내용을 일부 찾을 수 있지만, 내용이 일관되지 않으며, 또 상충 되는 경우도 있다.

## 4.2 정리사 출신의 인물

정리사 출신으로 알려진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현재까지는 정리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1차 자료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리사 출신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근현대인물자료’,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가자료’, 신문 및 잡지의 기사 등을 참고하면 다음 16명이 정리사 출신이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특정해 볼 수 있다.

김용선(金容善), 김의균(金宜均), 김현장(金顯璋), 김호(金乎), 신일용(辛日鎔), 신중활(申鍾活), 안일영(安一英), 양재기(梁在璣), 양태승(梁泰承), 염광섭(廉光燮), 이운재(李潤載), 이중화(李重華), 이진(李珍), 장지영(張志瑛), 주시경(周時經), 최규동(崔奎東)

31) <초등산술교과서> 하권의 신문 광고는 찾지 못했다. 인쇄를 맡았던 ‘휘문관’이 출판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리사’ 항목에 ‘장지연’이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1], 이것은 국어학자 ‘장지영(張志瑛)’의 오기 또는 오식으로 보인다. 한편 언론인 위암 장지연(張志淵)이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하는 선행 연구에서 장지연이 “1908년 9월에 정리사 본과에 입학하여 1911년 3월에 졸업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45, p. 102], 인용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암문고〉 11권의 부록에 있는 장지연 연보의 1908년 8월부터 1911년 12월까지의 기록에서 ‘정리사’를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53, p. 479–480]. 이 이외에도 위암 장지연이 정리사를 졸업했다는 정보가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이름이 비슷한 국어학자 ‘장지영’과 언론인 ‘장지연’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라사랑〉 29집의 ‘열운 장지영 해적이’에 보면 “1908년 9월~1911년 3월 사립 정리사 본과(수리 전문)를 졸업하다.”라고 되어 있다 [49, p. 16].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 정리사 출신 인물 7명을 찾을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규동, 안일영, 양재기, 이운재는 제1회 졸업생이고, 장지영과 김현장은 제2회 졸업생이다. 이 기사에서 주시경도 정리사 출신이라 하고 있지만, 그를 제1회 또는 제2회 졸업생이라 하고 있지는 않다. 최규동과 안일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소개했다. 양재기는 출판사인 활문사를 경영한 인물이다(1920년 3월 23일 매일신보 4면 광고, 1920년 3월 3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2265호 37면, 1922년 7월 21일 조선총독부 관보 제2982호 289면). 이운재는 치바(千葉)의학전문학교를 1918년에 졸업했으며 [32], 논문이 통과되어 ‘의학사(醫學士)’ 칭호를 인가받았다(1920년 2월 15일 매일신보 3면 기사). 김현장에 대해서는 휘문중학의 교사라는 것 이외의 정보는 없다(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장지영과 주시경은 모두 국어학자이다 [48, 49].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리사 출신으로 특정되는 인물로 김용선, 김의균, 김호, 신일용, 신종활, 양태승, 염광섭, 이중화, 이진의 9명이 더 있다. 김용선은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인물로, 정리사에서 ‘업(業)을 수료(修了)’했다(1928년 4월 21일 조선일보 4면 기사).<sup>32)</sup> 김의균은 변호사로서 경북도지사를 지낸 인물이다(1947년 1월 28일 영남일보 2면 기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인물자료’에는 “1906년 11월 12일 정리사에 입학하여 야간 수업함.”이라고 되어 있는 그의 이력서를 볼 수 있다 [5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김호’ 항목에 따르면 김호는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1]. 이 사전에는 임중빈과 한철호가 각각 집필한 ‘김호’ 항목의 어느 쪽에도 그가 정리사 출신이라는 내용이 없지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인물자료’에는 그가 정리사 제1회 졸업생으로 나와 있다 [5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신일용’ 항목에 따르면 신일용은 사회주의 운동가이다 [1]. 홍종욱이 집필한 ‘신일용’ 항목에는 그가 정리사 출

32) 조선일보의 이 기사 제목에는 ‘김선용(金善容)’으로, 본문에는 ‘김용선’으로 되어 있다. 전남 강진군 병영면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근거로 국회박물관에 보관된 ‘1948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추천서(김용선)’ [50]과 2012년 1월 9일 강진일보 기사 ‘총선으로 본 강진 정치사’를 참고하면 김용선(金容善)이 맞는 이름으로 보인다.

신이라는 내용이 없다. 다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내항일운동자료’의 ‘신일용 공판조서’에 보면 그가 ‘정리사에 입학’ 후 편입시험에 합격해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51]. 1936년 4월 2일 동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신중환은 일진학교(日進學校)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로 정리사를 ‘수료’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리사’ 항목에 따르면, 고창고등보통학교 교장을 지낸 양태승은 1911년 4월에 정리사 고등과에 들어가 1년 6개월 동안 수학을 전공했다고 되어 있지만 [1], 인용 근거는 없다. 집필자 강명숙이 제시한 참고문헌 [37, 57]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한편 <매하 양태승 평전>에 있는 연보에 따르면, 양태승은 1911년 4월에 정리사 고등과에 수학 전공으로 입학하여 1912년 9월에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만 [34, p. 312], 이와 관련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sup>33)</sup> 독립기념관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가 안창호 자료’에서 엽광섭의 이력서를 볼 수 있다. 이 이력서에 따르면 1893년에 출생한 엽광섭은 정리사에 1910년에 입학하여 1913년에 졸업하고 1914년에 도미(渡美)했다 [28]. 그는 1930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43년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60]. 1927년 7월 30일 동아일보 3면 기사에 따르면, 이중화는 중앙고등보통학교 교사로 정리사에 1908년 9월에 입학하여 1912년 4월에 졸업했다.<sup>34)</sup>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근현대인물자료’에 따르면 이진은 정리사를 ‘졸업’했으며, 경상남도 동래읍의 부읍장을 지냈다 [51].

주시경과 김의균은 각각 이력서에서 1906년 11월 12일에 정리사에 입학했다고 적고 있다 [35, 51]. 이것을 참고하면 1906년 11월에 설립된 정리사는 그해 1906년 11월 12일에 첫 입학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졸업생으로 특정되는 최규동, 안일영, 양재기, 이운재, 김호도 그즈음에 입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ure 1과 2를 참고하면 정리사의 개학은 일반적으로 4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개학 전까지는 언제라도 입학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입학생은 21명이었지만 [4], 그중 12명만이 졸업했다(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그런데 4월 개학 전에만 입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지영과 이중화가 모두 1908년 9월에 입학했다고 한 것을 보면(1927년 7월 30일 동아일보 3면 기사) [49, p. 16], 9월의 보결 입학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 최규동은 제1회 졸업생, 장지영은 제2회 졸업생이라 하고 있고, 장지영의 연보에 따르면 장지영은 1911년 3월에 졸업했다 [49, p. 16].<sup>35)</sup> 이것을 참고하면 정리사는 3년 과정의 전문학교이므로, 첫 입학생은 1910년 4월 이전에 졸업했을

33) 양태승 이외에 9월에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한 인물은 찾지 못했다.

34) 1933년 4월 24일 동아일보 2면 기사에 따르면, 이중화는 1933년 4월 22일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때 46세였다. 이것을 세는나이로 보면 그는 1888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국어학자 이중화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35) 1962년 6월 26일 동아일보 4면 기사에서 장지영은 한일합방이 되던 해 즉, 1910년에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앞서 본 장지영 연보의 내용과 다르다 [49, p. 16]. 1910년 3월에 졸업했다면 제1회 졸업생이므로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 내용과 다르다. 장지영은 <내가 걸어온 길>에서 정리사를 ‘이일’이 설립했다고 하고 있으나 [29], 이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것이다. 최규동이 1911년에 정리사를 졸업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9], [41, p. 19], [43], [45, p. 106], [57, p. 485], 어느 자료에서도 인용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중 가장 이른 기록은 1932년에 간행된 동광 38호에 소개된 최규동의 약력으로, 여기서 “1911년 3월 일본 사립 정리사 수학연구과 졸업”을 찾을 수 있다 [9, p. 7]. 이것이 최규동이 1911년에 정리사를 졸업했다는 정보의 원천으로 보이지만,<sup>36)</sup> 이것은 1939년 6월 22일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 그가 1회 졸업생이라는 것과 일관되지 않는다.

김민수가 집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주시경’ 항목에 주시경은 “정리사에서는 수물학을 3년간 34세가 되도록 공부하는 열성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을 뿐 졸업했다고 하지 않고 있다 [1]. 1939년 6월 22일 자 조선일보 5면 기사에서도 주시경이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지 않다.<sup>37)</sup> 김용선은 업(業)을 수료했다고 하고 있고(1928년 4월 21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신중환도 수료했다고 하고 있다(1936년 4월 2일 동아일보 6면 기사).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 정리사의 ‘졸업’과 ‘수료’는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유일선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의 학력 및 경력 정보의 검토, 그가 발간한 <수리학 잡지>와 그가 저술 및 교열한 수학 교과서의 서지 사항에 대한 간략한 논의, 그가 설립·운영한 정리사에 대한 논의의 세 가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유일선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활동을 했던 인물이지만, 또한 대한제국 말부터 일제강점기 초까지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교육 분야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1905~1906년에 <수리학잡지>를 발간했고, 1906~1913년에 정리사를 운영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학교육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일선은 1899년에 경성학당을 제1회로 졸업한 후 1900년에 도교물리학교에 입학해서 1904년에 졸업했고, 1905년 11월에 평양에 있는 일신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그가 1902년에 경성학당을 졸업했다는 정보가 있는 다른 자료가 있고, 이 정보가 정확하다면 그는 1900년에 도교물리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또 도교물리학교 졸업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유일선의 도교물리학교 졸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일선이 안병찬과 함께 일신학교의 교사로 연방되었다는 자료가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안병찬 1인만 연방된 것을 볼 수 있다. 유일선이 일신학교 교사로 활동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유일선은 당시에 일신학교의 연방에 응하지

36) ‘일본 사립 정리사’에서 ‘일본’은 잘못된 것이다.

37) 이 기사는 최규동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주시경은 1914년에 이미 사망했으므로, 최규동이 그를 제 1회 졸업생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주시경은 자필 이력서에서 1906년 11월 12일에 정리사에 입학해서 1909년 12월까지 수업했다고 적고 있다 [35].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주시경이 정리사를 수료했는지 아니면 졸업했는지 알 수 없다.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수리학잡지> 제1호, 제4~7호가 현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8호가 현존한다. 또 제8호까지만 발간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제9~10호가 발간된 것을 시사하는 다른 자료가 있다. 다만 제9~10호를 소장한 곳은 찾지 못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유일선이 저술한 수학 교과서로 <초등산술교과서(상, 중, 하)>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이외에 <중정대수학교과서>와 <중정평면삼각법>의 2종이 더 있다. 또 교열한 수학 교과서로 김준봉의 <대수학교과서>, 이명구의 <평면기하학>, 최규동의 <중등교육산술신교과서>의 3종이 있다. 안일영의 <산술문제신해법전서>도 교열했지만, 이 책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1906년에 설립된 정리사가 1912년까지 운영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적어도 1913년 초까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에서 장지연이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하고 있으나, 인용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장지연이 정리사를 졸업했다고 하는 추가적인 자료도 찾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장지연이 정리사를 졸업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다. 선행 연구에서 '언론인 장지연'과 '국어학자 장지영'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유일선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행 연구는 대개 특정한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2차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생략되면서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게다가 그 정보를 근거로 한 추정도 이루어졌다. 2차 자료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그러한 추정도 의미 없는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인 것처럼, 또 확인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참고했던 2차 자료 이외에 새로운 2차 자료를 추가로 수합하고, 교차 점검을 거쳐 유일선과 수학교육 분야에서의 그의 활동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거나 보완했다.

## References

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A Brief History of the Tokyo College of Science for Fifty Years*, 1930. 東京物理學校五十年小史, 1930.
3. CHOE Deok Gyo, *One Hundred Years of Korean Magazine vol.1*, Seoul: Hyeonamsa, 2004.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1권, 서울: 현암사, 2004.
4. CHOI Gyu Dong, A story of Korean academia 20 years ago, When I took the entrance examination, From 10 years of self-study withou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ing until today, *The Byoulgeongon* 5(1927), 20-21. 최규동(1927). 20년전 한국학계 이야기<sup>38)</sup>, 내가 입학 시험 치르던 때, 소학 중학도 가보지 못하고 독학 십년으로 금일까지. 별건곤 5(1927), 20-21.

5. CHOI Ho Suk, Chi Song Uk(지송옥) and His Publishing House, Singu-Sorim(신구서림), *The Research of Old Korean Novel* 19 (2005), 255–282. 최호석, 지송옥과 신구서림, *고소설연구* 19 (2005), 255–282.
6. The Chosun Ilbo. 조선일보.
7. The Daily News. 매일신보.
8. The DongA Ilbo, 동아일보.
9. The Donggwang 38 (1932). 동광(38) (1932).
10. The Dongnip Sinmun. 독립신문.
11.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already authorized Textbooks*, 1927. 조선총독부, 기인가 교과용 도서 일람, 1927.
12.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authorized Textbooks*, 1932. 조선총독부, 인가 교과용 도서 일람, 1932.
13.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authorized Textbooks*, 1933. 조선총독부, 인가 교과용 도서 일람, 1933.
14.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sixth edition, 1912.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6판, 1912.
15.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seventh edition, 1913.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7판, 1913.
16.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eighth edition, 1914.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8판, 1914.
17.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ninth edition, 1915.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9판, 1915.
18.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eleventh edition, 1917.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11판, 1917.
19.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List of Textbooks*, the revised twelfth edition, 1918. 조선총독부, 교과용 도서 일람, 개정 제12판, 1918.
20.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The Statistical Summary of Private Schools to Educate Joseon People*, 1913. 조선총독부, 朝鮮人教育私立學校統計要覽, 1913.
21. HAHN Kyu Moo, Result Report on 'A Study on Sangdong Youth School(1904–1913)', 2013. 한규무, 상동청년학원 연구(1904~1913)의 결과 보고서, 2013.
22. HAHN Kyu Moo, A study on Sangdong Youth School(1904–1913), *Humanities Journal* 42 (2015), 411–446. 한규무, 상동청년학원 연구(1904~1913), *서강인문논총* 42 (2015), 411–446.
23. HAHN Yong Jin, A study on Kyungsung School, *The Journal of History of Education* 26(2) (2004), 267–293. 한용진, 경성학당(京城學堂)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2) (2004), 267–293.
24. HAHN Yong Jin, A study on the school established by Japanese private organization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focused on the Kyungsung school(京城學堂), *The Oriental Studies* 38 (2005), 185–216. 한용진, 개화기 일본 민간단체 설립 학교 고찰: 京城學堂을 중심으로, *동양학* 38 (2005), 185–216.
25. HAN Young Gyun, A study on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Hanguk Munhwa* 73 (2016), 207–238. 한영균(2016),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

- 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 73 (2016), 207-238.
26. The HwangSeong Sinmun. 황성신문.
  27. The Hyundammungo <https://www.hyundammungo.org>. retrieved on November 24, 2024. 현담문고 2024년 11월 24일 검색함.
  28.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Data of Independence activists [An Chang Ho, Data No. 2477]. <https://search.i815.or.kr/contents/independenceFighter> retrieved on November 24.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 [안창호, 자료 번호 2477]. 2024년 11월 24일 검색함.
  29. JANG Ji Young, The road I walked, *Narasasang* 29 (1978), 21-43. 장지영, 내가 걸어온 길, 나라사랑 29 (1978), 21-43.
  30. Joseon Sasang News agency, *Joseon and Joseon People, 1927*. 朝鮮思想通信社, 朝鮮及朝鮮民族, 1927. 371-372.
  31. The Kanggin Ilbo. 강진일보.
  32. KEE Chang Duk, The Korean doctors who studied medicine abroad, *The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3(2) (1994), 171-201. 기창덕, 의학계의 해외 유학생, 의사학 3(2) (1994), 171-201.
  33. KIM Bong Hee, *A Study of Book Culture in the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1999.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34. KIM Byoung In, *A Critical Biography of Maeha Yang Tae Seung*, Seoul: Agibooks, 2006 김병인, 매하 양태승 평전, 서울: 아지북스, 2006.
  35. KIM Kye Kon, On resumes of HanHinSaem Ju Si Gyeong, *Journal of HanHinSaem Ju Si Gyeong* 4 (1991), 5-60. 김계곤, 한힌샘 주시경 선생의 이력서에 대하여, 한힌샘 주시경연구 4 (1991), 5-60.
  36. KIM Min Soo, Jang Ji Young's life and learning, *The Modern Life of Korean Language* 7(3) (1997), 5-9. 김민수, 장지영 선생의 생애와 학문, 새국어생활 7(3) (1997), 5-19.
  37. KIM Yong Un, KIM Yong Kuk, *History of Korean Mathematics*, Paju: The Sallimbooks, 2009. 김용운, 김용국, 한국수학사, 파주: 살림출판사, 2009.
  38. The Korea Daily News. 대한매일신보.
  39. The Korean Empire, *List of Textbooks*, the enlarged fourth edition, 1910. 대한제국, 교과용 도서 일람, 증보 제4판, 1910.
  40. The Korean Empire, *List of Textbooks*, the enlarged fifth edition, 1910. 대한제국, 교과용 도서 일람, 증보 제5판, 1910.
  41. LEE Myung Hak, Teacher Baeknong Choi Gyu Dong and Joongdong, *A Hundred Year History of Joongdong* (History of Alumni), (2007), 17-36. 이명학, 백농 최규동 선생과 중동, 중동 백년사(동문사) (2007), 17-36.
  42. LEE Sang Gu, HAM Yoon Mee, Korean tertiary mathematics and curriculum in early 20th century,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3) (2009), 207-254. 이상구, 함윤미, 한국 근대 고등수학 도입과 교과과정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22(3) (2009), 207-254.
  43. LEE Sang Gu, SEOL Han Kuk, HAM Yoon Mee, Comparison of early tertiary mathematics in USA and Korea,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3(4) (2009), 977-998. 이상구, 설한국, 함윤미, 미국과 한국의 초기 고등수학 발전 과정 비교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23(4) (2009), 977-998.
  44. LEE Sang Gu, SEOL Han Guk, First mathematical science journal of Korea in 1905, *The Ko-*

- 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3(2) (2010), 1–22. 이상구, 설한국, 한국 최초의 수학 및 과학 저널 –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 한국수학사학회지 23(2) (2010), 1–22.
45. LEE Sang Gu, *The Pioneers of Korean Modern Mathematics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3. 이상구,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사람의 무늬), 2013.
  46. Lee Seung Gu, PARK Bung Bae, LEE Chang Soon, *A Survey of a List of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e Last Period of the Daehan Empire and the Rule of Japan*,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01. 이승구, 박봉배, 이창순,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47. The Lyung Nam Ilbo. 영남일보.
  48. Narasasang 4 (1971). 나라사랑 4 (1971).
  49. Narasasang 29 (1978). 나라사랑 29 (1978).
  50. The National Assembly Museum, <https://museum.assembly.go.kr/museum> 1948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didate recommendation letter (Kim Yong Seon). retrieved on November 24. 국회박물관, 1948년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 추천서(김용선). 2024년 11월 24일 검색함.
  51.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Data Base of Korean History. <https://db.histoty.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2.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https://st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53.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iam Mungo* vol. 11, 1956. 국사편찬위원회, 위암 문고 11권, 1956.
  54. NISHIHARA Kiichiro, The light and shadow of overseas mission of the Japanese congregational church, *Studies in Christianity* 50(2) (1989), 159–204. 西原基一郎, 日本組合教会海外伝道の光と影(1), *基督教研究* 50(2) (1989), 159–204.
  55. The Official Gazett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조선총독부 관보.
  56. PARK Hye Mi, Yu Il-Seon's Life and Pro-Japanese activities as an itinerant teacher of Japanese union church,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52 (2015), 211–258.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순회교사' 柳一宣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211–258.
  57. PARK Seong Rae, *History of Science focused on Persons 1*, Seoul: Chakgwahamgge, 2011. 박성래, 인물과학사, 서울: 책과함께, 2011.
  58.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Year 2006 Investigation Report II, 200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2006.
  59. Seoul Historiography Institute, *Dictionary of Geographical Names of Seoul*,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지명사전.
  60. SOHN Sang Woong, Looking for the history of Korean missionary work, *The Korean Christian Press*, 2019. 손상웅,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영광섭(1895–1981), 미주크리스천신문, 2019.